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잭슨홀 랠리 이후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 전환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5일(월)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1.0%)의 로봇 출시 및 2분기 실적 기대감 등 AI주들의 강세에도, 9월 FOMC 불확실성 잔존 속 금요일 급등에 대한 차익실현 여파로 약세(다우-0.8%, S&P500 -0.4%, 나스닥 -0.2%).

지난 잭슨홀 미팅은 연준의 9월 인하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한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내 남은 3번의 FOMC 동안 총 금리인하 횟수의 컨센서스가 2회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신경 쓰이는 부분. 이는 연준이 9월부터 금리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더라도, 작년처럼 강도 높은 금리인하 스케줄을 가져갈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시사(작년 9월 FOMC에서 50bp 빅컷 이후 11월 25bp, 12월 25bp, 총 100bp 인하를 단행).

잭슨홀 미팅 이후 4.3%대에서 4.25%대까지 급락했던 미 10년물금리가 현재 4.28%대로 재차 상승하는 등 시장 금리의 추가 레벨 다운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 아직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연준 정책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물론 당사는 “연준의 9월 25bp 인하 + 연내 총 2회 인하(총 50bp)” 전망을 유지 중임. 이 같은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은 4분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유동성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변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주 후반 7월 PCE, 다음달 8월 고용, CPI 등 주요 매크로 이벤트를 치르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컨센서스가 급변할 가능성을 열고 가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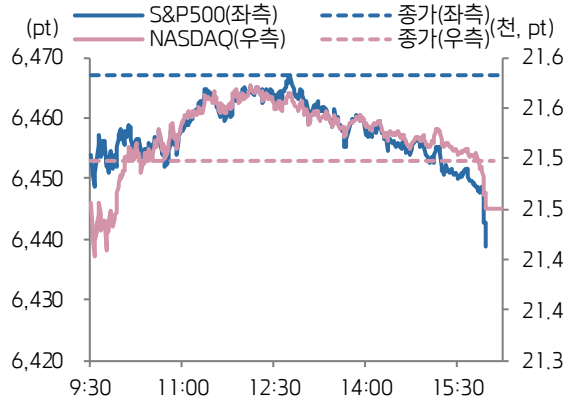
그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기에, 9월까지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7~8월보다 위험관리에 대한 무게중심을 높여가는 것도 대안. 동시에 연말까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시, 미국이나 한국 모두 주가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므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집중투표제 도입 등)에도, 잭슨홀 미팅 안도감에 힘입어 바이오, 이차전지, HBM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대 상승세로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2.0%).

금일에는 미국 증시의 잭슨홀 랠리 되돌림 여파, 국내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지속,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에 영향 받으며 하락 출발 이후 지수 흐름은 정체된 채 업종 차별화 장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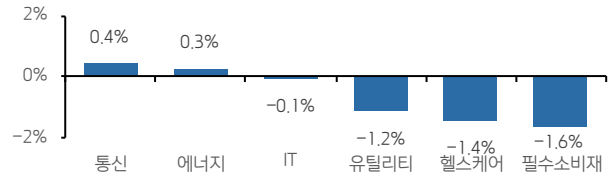
한편,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것보다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판단. 회담 시작 전 트럼프가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할 수가 없다” 식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기 때문. 하지만 실제 회담은 1) 조선 분야 협력, 2) 북한 문제(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 3) 에너지 구매 등 여러 의제들을 큰 문제 없이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판단. 다만, 상호관세,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등 관세와 관련 구체적인 협상이나 구두 협상의 명문화는 나오지 않은 상황.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금일 증시 전반에 상방 모멘텀을 제공하기 보다는 조선, 남북 경협주 등 특정 업종 및 테마를 중심으로 단기 수급 쏠림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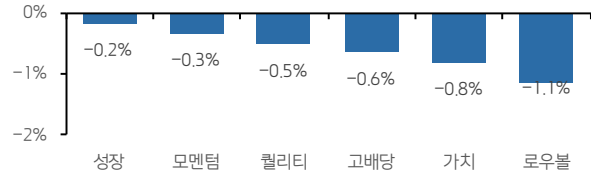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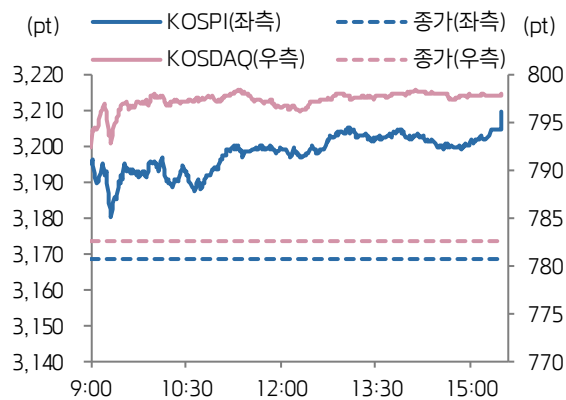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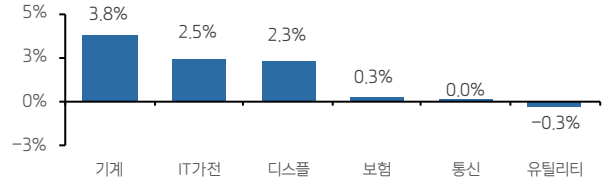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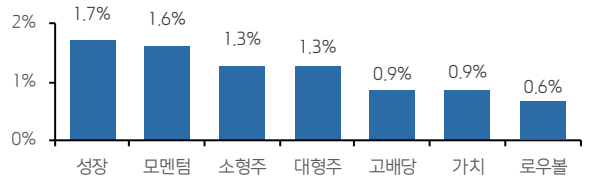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7.16	-0.26%	-8.97%	GM	58.28	-0.15%	+10.03%
마이크로소프트	504.26	-0.59%	+20.29%	일라이릴리	695.33	-2.3%	-9.39%
알파벳	208.49	+1.16%	+10.4%	월마트	96.07	-0.78%	+7.13%
메타	753.30	-0.2%	+28.87%	JP모건	294.90	-0.45%	+25.02%
아마존	227.94	-0.39%	+3.9%	엑손모빌	111.74	+0.41%	+6.76%
테슬라	346.60	+1.94%	-14.17%	세브론	158.20	+0.01%	+13.02%
엔비디아	179.81	+1.02%	+33.92%	제너럴일렉트릭	96.07	-0.8%	+7.1%
브로드컴	294.23	+0.08%	+27.59%	캐터필러	432.30	-0.77%	+20.62%
AMD	163.36	-2.62%	+35.24%	보잉	226.87	-1.41%	+28.18%
마이크론	116.42	-1.07%	+38.64%	넥스트에라	75.32	-1.3%	+6.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209.86	+1.3%	+33.77%	USD/KRW	1,390.30	+0.49%	-5.57%
코스피200	433.89	+1.26%	+36.52%	달러 지수	98.44	+0.74%	-9.27%
코스닥	798.02	+1.98%	+17.67%	EUR/USD	1.16	-0.85%	+12.21%
코스닥150	1,348.11	+2.2%	+19.32%	USD/CNH	7.16	-0.19%	-2.45%
S&P500	6,439.32	-0.43%	+9.48%	USD/JPY	147.80	+0.59%	-5.98%
NASDAQ	21,449.29	-0.22%	+11.07%	채권시장			
다우	45,282.47	-0.77%	+6.44%	가격	DTD(bp)	YTD(bp)	
VIX	14.79	+4.01%	-14.76%	국고채 3년	2.435	-2bp	-16bp
러셀2000	2,339.17	-0.96%	+4.89%	국고채 10년	2.852	-0.8bp	-1.9bp
필라. 반도체	5,756.30	+0.03%	+15.59%	미국 국채 2년	3.724	+2.7bp	-51.8bp
다우 운송	15,814.56	-1.79%	-0.51%	미국 국채 10년	4.275	+2.1bp	-29.4bp
상해종합	3,883.56	+1.51%	+15.87%	미국 국채 30년	4.890	+1.4bp	+10.9bp
항생 H	9,248.00	+1.85%	+26.86%	독일 국채 10년	2.757	+3.5bp	+39bp
인도 SENSEX	81,635.91	+0.4%	+4.48%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43.96	-0.81%	+11.19%	WTI	64.80	+1.79%	-5.83%
MSCI 전세계 지수	952.96	-0.24%	+13.27%	브렌트유	68.80	+1.58%	-7.82%
MSCI DM 지수	4,174.13	-0.45%	+12.58%	금	3,417.50	-0.03%	+23.51%
MSCI EM 지수	1,285.46	+1.49%	+19.52%	은	38.70	-0.9%	+32.35%
MSCI 한국 ETF	72.73	-1.06%	+42.92%	구리	447.75	+0.41%	+11.2%
디지털화폐				BDI	1,944.00	+2.69%	+94.98%
비트코인	109,574.79	-2.84%	+16.92%	옥수수	412.25	+0.18%	-7.1%
이더리움	4,353.33	-9.06%	+30.09%	밀	529.75	+0.47%	-11.49%
				대두	1,047.75	-1.02%	+2.19%
				커피	377.75	-0.15%	+30.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